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GLOBAL TOP 10 CITY</b> <b>INCHEON</b>	
	<b>배포일자</b>	2024년 6월 26일(수) 총 2매		<b>세계 10대 도시 인천</b>
<b>담당</b> 경제정책과	<b>담당자</b>	• 일자리정책담당 • 주무관	정신옥 ☎440-4231 최선화 ☎440-4236	
<b>사진(이미지)</b>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b>참고자료</b>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b>보 도 시 점</b>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자동차 산업 원·하청 격차 해소위해 지역 협력 강화**  
**- 인천시 등 6개 기관,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  
**- 자동차 업종 일자리 지원, 근로환경 개선에 협력하기로 -**

인천광역시는 26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산업의 이중구조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5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상공회의소, 인천모빌리티연합, 인천테크노파크 모빌리티센터,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앞서 인천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자동차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1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협약 참가기관들은 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도약장려금’ ‘일자리 취업 채움 지원금’ ‘근로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35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채용지원금을 최대 월 10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12개월)을 지원하고, 신규 취업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일자리 채용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입비용 지원, 근로자 대상 휴가비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가치경영(ESG)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환경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부품 및 소재를 조립하는 특성상 협력 업체가 단계적으로 분포돼 있다. 그러나 2, 3차 협력업체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자동차 업계의 원·하청 간 이중구조는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그간 뿌리산업 지원을 위해 구축된 각종 위원회 등 거버넌스와 사업 노하우를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해 올해 처음 자동차 산업 대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이번 업무협약 통해 올해 말까지 약 200명의 근로자 및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취업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계속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자동차 산업의 원·하청 간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지역 산업 근로환경 개선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